

예수 성탄 대축일

제1독서: 이사 52, 7-10

제2독서: 히브 1, 1-6

복 음: 요한 1, 1-18

# 순정이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요한 1, 9)

## 축! 성탄



나는 말,

너는 소.

하늘의 아기님

어서 오세요.

나는 망아지,

너는 송아지.

우리들의 구유 안이

비어 있어요.

우리 집은 마구간,

너희 집은 외양간.

서정슬(안젤라)

96년 성탄절 메시지



#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요한 3,5)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여-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또다시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대축일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루를 살고 잠 자리에 들 때, 한 가지 일을 끝내고 뒤를 돌아다 볼 때, 우리는 흔히 개운함 보다는 미진함을, 기쁨 보다는 회한을 느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의 마음도 비슷한 테두리 속을 맴도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그렇거니와 주변 사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더욱더, 우리는 세상이 아직도 빛 보다는 어두움의 힘에 더 크게 눌려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들이 돌씩이나 엄청난 비리와 현정질서 파괴혐의를 받고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보았고, 또 하나의 전직 대통령이 상식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워 잘못된 역사의 진실 밝히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으며, 문민임을 내세우는 정치 체제 안에서도 장관들이 부패혐의를 받아 줄줄이 묶여 가거나 자리에서 물러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부패의 고리는 사회 구석구석에까지 그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어디 한 구석 성한 데라고는 없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에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사는 동포들을 상대로 펼친 대규모 사기 사건이 드러나 온 국민을 참으로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면 못 팔 것이 없는 세상, 양심도 지지도도 정절도 돈을 준다면 쉽게 바꿔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풍조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나무 위에 올라가 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의 몸짓처럼 허망한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수백만에 이른다는 태아가 빛을 보기도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무참히 살해되고, 나어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폭력이 난무하며, 각종 패륜 범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합니다. 사람들이 마시고 살

이병호 주교 / 천주교 전주교구교장

아야 할 취수원으로 홀려들어갈 줄을 뻔히 알면서도 비밀 배출구를 통해서 독성이 강한 오폐수를 홀려 내 보내는 사람들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에,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는 말이 여전히 현실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비쳐지게 하는 법 운용자들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먹구름은 온 세상을 덮어가고 암흑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소리, 한숨 짓는 소리, 따지는 소리, 치를 떠는 소리, 치유책을 주장하는 소리들이 여기 저기에서 들려옵니다. 그 모든 소리들이 다 나름대로의 쓸모가 있을 터입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어떤 꿈틀거림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의인들이 힘을 모아 한가닥 희망을 주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하루 온 종일 세상을 비추던 태양이 서서히 지고 나면, 여기 저기 등불이 켜졌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마저 하나 둘씩 꺼지고 마지막으로는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 들 듯이, 인간 세상에 덮여오는 어두움은 우리 사람들이 켜든 촛불 몇 자루로 헤쳐내기에는 너무나 짙고 넓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검은 돈은 더욱 철저히 숨어서 여전히 오갈 것이며 오히려 규모만 키워 주고 말뿐이라는 말도 들립니다. 범망을 아무리 총총히 짜놓아도 도둑은 더 교묘하게 그것을 뚫고 피하면서 한 번 마음 먹은 것은 해내고야 말 것입니다. 일시적 쾌락에 빠져 한 삶을 망치지 말라는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이미 발동한 욕망 앞에서는 허망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나라, 한 사회의 방향을 바로 잡고 인도할 위치에 있던 이들이 흥보매체에

**015 팔달통신**  
 -전북이동통신 팔달로 대리점-  
 휴대폰, 카폰, 호출기  
 오 현 중(스테파토)  
 유 미 숙(마 르 타)  
 전주 오거리 국민은행 앞  
 ☎ 84-0015~6

**코코 드라이크리닝**  
 배달전문 세탁소  
 옷수선, 특수복 제작 및 커튼 맞춤,  
 모시옷 제작, 양복드라이  
 심 형 섭(이시도로)  
 숲정이 성당 사거리 문화일보 앞  
 ☎ 251-3229  
 호출: 012-677-5433

**월드커튼 상사**  
 원단, 부자재 도매  
 각종 커튼 전문  
 노 길 환(요 한)  
 윤 정 희(그라시아)  
 남문 코오롱상가 앞  
 ☎ 231-5857~8

**로코코 인테리어**  
 실내장식, 개조공사, 불박이(거울)  
 장 마루판, 중문(엠펙, 베벨드),  
 주문가구, 칠공사, 선반, 보조기,  
 건조대, 욕실장, 커튼, 버티컬,  
 전화상담환영  
 서 원 식(야고보)  
 서신동 동사무소 뒤  
 ☎ 78-0190~1

매일처럼 그토록 위대한 영도자로 선전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파렴치범으로 드러난 마당에, 그를 바라보던 국민들, 특히 감수성 많은 청소년들이 어디서 삶의 올바른 방향과 기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질은 어둠 앞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찬란한 태양이 사라지고 달마저 보이지 않을 때, 하늘에는 별빛이 더욱 선명히 나타납니다. 현란한 빛들에 가리워 보이지 않던 별빛이 어둠 속에서는 우리 눈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희망의 별빛은 어둠을 배경으로 해서 더욱 잘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추운 겨울, 캄캄한 밤중을 틈타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모든 세력들이 그 힘을 거두고 조용히 잠든 시간에 오십니다. 황제도 휘황찬란한 어좌를 떠나 거추장스런 곤룡포를 벗고 어느 촌로와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는 시간, 왕궁과 오두막에 한꺼번에 내려앉아, 요란한 위세는 덮어버리고 부끄러움은 가리워 주는 어둠의 시간에 오십니다. 사람들의 활동시간이 지나고 하나님만 계속 일하시는 밤, 그래서 한낮의 소음에 묻혀 있던 양심의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오는 밤에 오십니다. 그렇게 오신 분, 하나님의 외아드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이 아무리 흉칙해도, 그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하실 일을 못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신앙인은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는 은총도 풍성하게 내렸습니다.”(로마5,20)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모조리 실패하고 말았을

때,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꿈틀거릴 적마다, 수렁 속에 빠져 바동대는 사람처럼, 점점 더 험악한 지경으로 빨려들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렁을 찾아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몫은 오시는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일 뿐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제도를 고치고 기강을 바로잡는 일은 모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구렁에 빠진 사람이 자신의 귀를 잡고 거기서 빼낼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일체의 목소리를 그만 두고, 고요한 밤에 반짝이는 별을 보며 저 위 하늘에서 오는 빛을 받아들일 때,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애초에 심어주신 자신의 참 모습, 하나님의 얼굴을 자신 안에서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신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 안에 설치해 주신 전화선입니다. 모두가 한낮의 열기를 식히고, 저 멀리를 바라보며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정면으로 대하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의 대표격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지존과의 두목도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찾아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길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밤에 온 세상이 잠든 고요 속에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문을 열어 드리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들어라. 내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 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묵시 3,20)

### 요심이 (1218) 김병오

이 여자는 전국에서 수석한 학생의 어머니입니다



이 여자는 돈이 많은 재벌의 어머니입니다

강하십니다



이 부인은 대통령의 어머니입니다

몰라봐서..



이 여자는 돈 없고 권력도 없는 여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공인회계사 강기문사무소**

“교우 세무상담 무료”

강기문(마태오)  
박소진(수산나)

경원도 파출소.앞, 소서빌딩 3층

☎ 87-7007  
FAX. 87-7009

**서울방사선과의원 (종합건강검진센터)**

전신C-T촬영·일반X-선 촬영  
골다공증 측정·전신초음파 촬영  
유방촬영·성인병검진·자동차적성검사  
박인숙(아나다시아)  
구 금암분수대 로타리  
☎ 78-1312~3

**로알석유**

쌍용 석유, 경유 신속배달  
말통배달·보일러 청소

이명길(요섭)

☎ 245-9277, 3533  
휴대폰 011-654-9277

**LG 에어컨**

에어콘·온풍기·공기정화기·제빙기  
업소용냉장고·중앙집중식 냉난방  
97년도 신제품 에어컨 예약중  
15% 할인+10개월 무이자 할부

원승연(도밍고)  
백제로 비상경기장 맞은편

☎ 241-2000, 227-0902

**(주)이삭은돌침대 파워스톤**

수맥방지 및 치료용 건강돌침대  
(공업진흥청 전자파실험필,EMI)  
박천운(베드로),임선재(데레사)  
전남북총판

☎ (0652) 251-9836~7  
호출기 015-675-9824  
휴대폰 011-651-7124

10년 전통의—  
**선경 컴퓨터 타운**

삼성,삼보 및 SKC 컴퓨터 총판  
이병균(프란치스코)  
정미선(글라리)

보험청구 가능한 자 및 아르바이트생 구함  
평화중공1단지 입구  
☎ (代) 231-2237

「숲정이」 편집인들의 인사

# 축하와 감사



올 한 해 동안 저희 「숲정이」를 아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사랑의 채찍을 부탁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빕니다.

박찬길 신부 / 사목국장



늘 올해가 오늘이 마지막이거나 하고 지내지만 마음처럼 살아가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대중매체의 위력 앞에서도 다원주의 사회의 소수 종교인 천주교 신자로서 미약한 글의 힘으로나마 홍보를 위해 더 애쓰겠습니다.

가정마다 기쁜 복 가득하십시오.

정인섭(안드레아) / 평화동 성당



† 하느님께 영광을 성탄을 축하 드립니다.

교회 자매님들 가정마다 항상 사랑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빛이 비추시어 성가정을 이루시길 기도 합니다.

모보일(즈가리아) / 송천동 성당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으니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해’를 맞아 가정과 일터에서 그분을 꼭 만나뵈옵기를 기원합니다.

교구보 「숲정이」의 은경축을 맞는 새해에 우리 모두 건안하십시오.

한상갑(바오로) / 삼천동 성당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저물어 가는 한 해의 마무리를 가족과 함께...

보다 알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박대길(벨라도) / 호남교회사연구소



김병오(그레고리오) / 전동 성당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을 좇아 건강하고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최원석(시몬) / 사목국 홍보과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오신 아기 예수님과 함께 희망찬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숲정이」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향자 수녀 / 사목국 홍보과

